

T.S. Eliot의 "황무지"에 대한 성경적 배경에 관한 이미지

The Image of Biblical Background
in *The Waste Land* by T. S. Eliot

황인경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Abstract:

We can see that in the Old Testament stories there are also stories of prophets other than Hosea. You can also see the story of Hosea, a small prophet. The prophet Hosea warns the Israelites of their unfaithfulness to God, but the Israelites are not listening to him. However, in Hosea, God continues to make gestures of love even if the Israelites disobey. Judgment against God does not mean that God no longer loves the people of Israel. Although described in the Old Testament as a nation of Israel, Elliott portrayed the image of England, who worshiped idols and denied Christianity, in *The Wasteland*. According to God's voice, "When I speak, the wilderness will lead you into the heart." (5. *What Thunder Said*) Hosea warned the Israelites that God would judge their sins, and he pleaded with Israel to return to God.

"Let's return to Jehovah." And he cried out to the Israelites, "Let's try to know the Lord," but the Israelites never listened. As we can see the Israelites wander and suffer in the wilderness as described in Hosea, T.S. Elliott also sang in his poems in *The Wasteland* about the sadness of life in the wilderness in England. T.S. Eliot might want to turn an unrealistic city into a sacred city through reforms like Germany. The tent of the Most Holy Place was torn in the most holy place due to the sin of the high priest. He may be cynical to revolutionaries like the Soviet Union, but he focused on the legitimacy of the Reformation and the individual salvation of Israel, who became God's enemy, and the background of his poem, *The Waste Land* is described as a place of salvation and judgment.

Key words: T. S. Eliot's *The Waste*, Individual Salvation, Reformation, a high priest, a holy place

I. 서론

시를 읽어내려가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시어에 대한 문구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에 대한 해독은 독자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문학의 향유로써 간주되고 있다. 더군다나, 독자의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문학 비평은 활발히 움직이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시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고 있다. 시(詩) 속에 담겨진 신비스럽게 표현된 텍스트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으로써 해석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읽어내려가게 되면, 인문학의 비평은 AI 가 해내지 못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언어의 창의성으로 확대되어 재해석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 시인이 쓴 모호한 문구를 독자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마치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것처럼 해석의 장을 열어가는 것 역시, 독자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독자의 상상력의 과정은 또 하나의 창작 과정으로 연결 되는 문학 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시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해석 속에서 독자들은 시를 읽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즐거움이고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비평은 인문학도들에게는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즐거움과 특권은 시 속에 담겨진 보석과도 같다. AI가 해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특권으로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감동적인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될 수 있다. 우리 독자들의 즐거움과 특권의 자유로움으로 시 속에서 나타난 수사학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자들의 역할이란 숨겨진 보물 찾기의 열쇠를 시인 등이 쓴 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다. 시인들이 자기들이 쓴 글의 의미를 자물쇠로 잠겨버린 글귀를 찾아냄으로써 인문학의 수사학을 펼치는 잔치에 독자와 시인들은 초대되어, 문학의 텍스트를 쓴 시인에게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직분이 주워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비평가들에게 언어의 감정사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시인들이 쓴 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파악과 신선한 해석으로 문학 비평이 발전하게끔 해주고, 계속해서 인문학의 평전을 연속해서 펼쳐나가게 하고 있다. 시인 T. S. Eliot의 『황무지』에 대한 많은 비평과 고견들이 있지만, 구약 성서에서 바라보는 황무지에 대한 논지로 Eliot의 『황무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평전을 펼치고자 한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라고 한다. 그 기간은 남왕국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해당되고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서는 열두권의 소선지서 중 첫 번째 책이다. 소선지라고 붙여진 이름은 기록된 분량이 짧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T. S. Eliot의 『황무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유사하게 알레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하고 모호한 색채를 지닌 『황무지』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시 속에 담겨진 어둡고 황량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황무지에서 독자는 시인과 함께 슬퍼하기도 해야 한다. 『황무지』에서 보이는 표면상의 글에서 내포된 시어의 해석을 구약성서에서 담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내고자 한다. 성경 속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와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에 대해 엘리엇이 어떻게 알레고리를 그려나갔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황무지』에서 바라본 광야와 『구약』성서의 광야

1. 개별성과 보편성

비기독교인에게도 낯설지 않는 모세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는데, 특히 서구 세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여러 문학 작가들이 이러한 구약 성서의 광야를 배경으로 문학 소재로 삼기도 하였다. 특히 낭만주의 시인인 로드 바이런(Lord Byron) 역시 『우리는 바빌론강가에서 울었노라.』(By the Rivers of Babylon We Wept.)라는 시의 배경은 시편 137편의 내용에서 빌어온 것이다.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바이런과 같은 시인도 구약 성서에 나온 내용을 주제로 시를 썼듯이 T. S. Eliot 역시 구약 성서에 나온 내용을 소재로 글을 썼는데 바로 이 황무지이다. 『황무지』와 연결된 구약 성서 중 가장 유사하게 묘사된 것이 『호세아』서인 것이다. 성서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에 오는 글을읽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번영기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2세때 호세아가 성직에 임하던 때라고 볼 수 있다. (상류층은 잘 살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였고, 그는 B.C. 722년 사마리아의 몰락 이후를 예언을 하였다.

Hosea began his ministry during the end of the prosperous but morally declining reign of Jeroboam II of Israel (the upper classes were doing well, but they were oppressing the poor). He prophesied until shortly after the fall of Samaria in 722 B.C. (*Application Study Bible*, p.1392)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 하던 때라고 한다. 그 기간은 B.C. 753~723 이며 이 시기는 남왕국 웃사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해당된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아모스가 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겪는 사건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p.37)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가 내린 결정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구원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중의적인 상황이 이 T.S. Eliot의 『황무지』(*The Waste Land*)에 전개되고 있다. 장일선의 『구약신학의 주제』란 책에 나온 인용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월은 잔인한 달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20세기의 시인 엘리엇(Eliot)는 그의 작품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땀에 적은 얼굴들을 위해 비치는 햇불 뒤에
정원들 안의 싸늘한 침묵 뒤에

들 고장들의 고민 뒤에
 저 아우성 소리 울음 소리
 감방과 궁적과, 머나먼 산들을 넘어
 봄의 뇌성의 진동
 살아있던 그가 지금 죽었고,
 살아 있던 우리가 지금 죽어간다.
 약간의 참을성을 가지고,
 여기는 물이 없다. 다만 바위 뿐
 바위 뿐 물이 없고, 오랜 길

 이 산들 속에는 고독조차 없다.
 토벽 갈라진 집 속의 문간에서
 비웃고 으르렁 거리른 시뻘건 음흉한 얼굴들 (양주동 역, 탐구당, pp.118~119)

엘리엇트는 이 시에서 현대인의 실존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황무지와 같다는 것이다. 앤더슨(Anderson)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출애굽기 13:18) 인도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엘리엇트가 말하는 것과 같은 “황무지”를 거쳐가게 되었다고 말한다.(Anderson, p.1)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로 깨달았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길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장일선, pp168~169)

이와 같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광야와 T.S. Eliot의『황무지』에 나오는 소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개혁없이 영국이 본래의 제모습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오는 T.S. Eliot 의 『황무지』위의 시의 표지처럼 제목 밑에 나온 문구(epigraph)를 살펴보면,

The Waste Land

"Nam Sibyllam quidem Cumis ego ipse oculis meis vidi
 in ampulla pendere, et cum illi pueri dicerent: Σιβυλλα
 τι θελεις; respondebat illa: αποθανειν θελω."

"Nam Sibyllam quidem Cumis ego ipse oculis meis
 vidi in ampulla pendere, et cum illi pueri dicerent:
 Sibylla ti theleis; respondebat illa: apothanein thelo."

“한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애들이 ‘무녀아 넌 뭘 원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네는 대답했지요. ‘죽고 싶어’”

For Ezra Pound
il miglior fabbro.

첫 번째 장 즉 표지 부분과 같은 제목 밑에 나온 문구(epigraph)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장에는 『황무지』란 시(詩)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죽은 자의 매장」의 첫 장은 영어로 되어 있고 12행만 독일어로 되어 있다. 「죽은 자의 매장」(*The Burial of the Dead*)에 나오는 “저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출생은 리투아니아이지만, 진짜 독일인입니다. (Bin gar kine Russin, stamm' aus Litauen, echt deutsch.)” 독일인임을 강조한 것은 영국이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개탄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복선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루터가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의 개별화에서 보편화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이렇게 독일인임을 강조하였던 것은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시사하고자 내세웠던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종교개혁의 알림을 시작하는 암시로 시작되어 개혁이 없이는 광야에서 헤맬 수 밖에 없는 영국의 현실을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슈타른베르거호 너머로 -‘over’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Summer surprised us coming over the Starnbergersee)이며 독일을 넘어선 경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over’에 대한 많은 의미가 주어지지만, 독일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다는 의미로 바라보면, 독일과는 동떨어진 행동, 종교개혁을 위해서도 아니고 전도 여행도 떠난 것이 아니라 황무지의 주민들은 쾌락을 관광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황무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교도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호프가르텐 공원의 햇빛이 나는 곳으로 전치사 ‘into the Hofgarten’,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 출생지임을 강조하고 러시아 인이 아니라는 것’은 러시아 2월 혁명과 볼셰비키 10월 혁명 이전의 지역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은 T.S. 엘리엇은 혁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임을 알 수 있다. 종교 개혁이후 라틴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개별 언어인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의 번역이 활발히 이뤄져 있어서 성경이 보편화되고 있듯이, 이 『황무지』에서도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씌여진 표지 부분이 점진적으로 영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종교 개혁의 타당성이 영국에서도 보편화되기를 바라는, 엘리엇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엇 또한 기독교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있는 자로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관련된 세계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엘리엇에게 종교는 하나의 신념이자 그가 생각하는 실존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였다. 그중 기독교는 엘리엇에게 있어 성스러운 삶, 죽음, 거룩함, 겸손함 등과 같은 개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체계로 여겨졌다. (김준형, p.39)

이와 같이 엘리엇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에 대한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 그의 시에 반영할 정도로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그의 시에 투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여진다. 독일의 강조는 아마도 313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태교의 모습이기도 한다. 이러한 독일인에 대한 암시는 종교개혁의 합리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김준형의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는 엘리엇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2.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암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이교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달일 수 밖에 없다. 새 생명의 탄생과 봄을 알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생과 회복,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4월은 잔인한 달일 수 밖에 없다. 라일락의 꽃말이 지닌 의미는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일락의 나무와 연결되어서 추억을 그리는 장면은 「불의 설교」(*The Fire Sermon*)인 레만 호숫가에서 앉아 나는 울었노라. By the waters of Leman I sat down and wept. . .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1장)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 Zion. (Psalm 137: 1)

「제 4장 익사」(*Death by Water*)는 바로 이러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있었던 물가를 연상케하고 있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레만호숫가에서 앉아 나는 울었노라. (By the waters of Leman I sat down and wept. . .)
「3. 불의 설교」(*The Fire Sermon*)에서 이미 바빌론 강가에서 익사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제 4장 수장」(4. *Death by Water*)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가지로 넘어지리라. (『호세아』 5:5)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향 한 첫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추억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라일락은 광야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유다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자기들이 누렸던 시온의 평강과 말씀의 인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내용이

『시편』137과의 내용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바빌론에 붙잡힌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강변 토목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각 연을 살펴보면, breeding, mixing, stirring 현재 진행형의 시제는 가까운 미래의 시제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희망이 없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희망이 엿보인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도출해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방황이 완결(complete) 된 것이 아니고 곧 방황의 긴 터널이 끝날 것이라는 예정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여호와와는 유다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다. 광야에서의 제 2장의 「체스 놀이」에서 가장 보호자가 되어야 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겁탈당하는 동안 체스 놀이를 하고 있다. 즉 시어머니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가짜 신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고멜의 자식의 이름일 빌어서 절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 1:9)

And the Lord said, “Name him Lo-ammi - ‘Not my people’ - for Israel is not my people, and I am not their God. (Hosea 1:9)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자식 중에 로아미(Lo-ammi)라는 자식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Not My people) 라고 호세아서 제 1장 9절에 쓰여진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시하면서 절대자가 호세아를 통해 경고한 것으로 비유된다. 또한 절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황무지가 언제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개간하고 개발하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임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 1: 10)

Yet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will be like the sand of the sea, which cannot be measured or numbered. And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Hosea 1:10., NIV)

T.S. Eliot의 황무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신화 속에서 나오거나, 사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혹은 죽은 사람의 혼령들의 활동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뼈를 잃은 쥐들의 골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I think we are in rats’ alley./ Where the dead men lost their bones./ 저게 무슨 소리죠?(What is that noise? 문 밑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The wind under the door” 여기에서 바람 소리는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하는 말로, 혼령이나 악령이 돌아다니는 황량한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작년 뜰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 올해엔 꽃이 필까, 혹시 때 아닌 서리가 묘상을 망쳤나?(That corpse you planted last year in your garden,/‘Has it begun to sprout? Will it bloom this year?/‘Or has the sudden frost disturbed its bed?)” 시체가 썩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체가 썩고 생물체가 부패할 때 비옥한 토지가 되는데, 마른 뼈들만이 살아남은 광야의 모습이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 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에스겔 37:1~2)

Rapa 역시 『에스겔』서와 『황무지』와의 비교분석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르게 말하면, 황무지와 에스겔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병행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만큼 주목할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비교 없이 읽는 것보다는 그러한 비교를 통해 황무지를 읽어 내려가는 기회를 제공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덜 사악한 분위기에 매달리지 않고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 선지자들의 활동들의 이야기의 원래 맥락에서, -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죽음과 멸망, 그리고 절박한 운명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황무지를 통해서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강요하도록 보이지만, - 항상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을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논제자 번역)

Said differently, what is notable about the parallels between *The Waste Land* and *Ezekiel*, as well as other biblical prophets, is that they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to read *The Waste Land* as a less foreboding work than we might in the absence of such a comparison. For the Hebrew prophets, in their original context - though they force the Israelities to face death, destruction, and impending doom, much as *The Waste Land* forces us - always offer through their prophecy the possibility of renewal and salvation. (Rapa, p.19)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황무지의 모습 그 자체의 모습이다. 풀무가 살점을 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황량한 모습인 메뚜기 재앙으로 절대자의 심판임을 『요엘』서에는 묘사되어 있지만, 『황무지』에 나타난 「불의 설교에」(*The Fire Sermon*)에서는 ‘흰 시체들이 발가 벗고 낮고 습기 찬 땅 속에(White bodies naked on the low damp ground)/ 뼈들은 조그맣고 낮고 메마른 다락에 버려져서 해마다 쥐의 발에만 차여 덜그럭 거렸다.(And bones cast in a little low dry garret, Rattled by the rat's foot only, year to year)태워져야 할 것들이 태워지지 않고 쥐들에 의해서 없어지고 마는’ 등의 이미지리는 메뚜기 대신 쥐를 등장시킴으로써 흑사병으로 고생을 하였던 중세의 암흑시대를 연상케하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개인적인 구원을 통해 인간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상기시킴과 동시에 불로써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쥐를 불로 태워버리는 힘은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절대자의 권위를 말해 주고 있다.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누가 이러한 불을 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묘사되고 있다. 불을 관리 능력과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화교를 상징하는 촛불(candle)과 성경에서 말하는 빛(light)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새소리는 Jug, jug 과 같은 허쫌는 구개음화 현상의 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의성어에 대한 이미지는 동트는 아침의 이미지와 반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새는 아침을 알리는 상쾌한 새소리가 아니다. 황무지에서서는 저녁에 새가 지저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는데, 빛이 아닌, 타락한 인간이 켜 놓은 촛불 아래에서 성적 타락이

일삼는 곳이며, “이상한 향료들이 연고 분 혹은 액체로 숨어서(Unstoppered, lurked her strange synthetic perfumes)”/“감각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익사시켰다.(And drowned the sense in odours; stirred by the air) ‘

촛불과 불과의 경계선상에서 「불의 설교」(*The Fire Sermon*)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불은 번제를 태우는 것, 속죄, 문명, 하나님만이 불을 다스림과 「천둥이 말하는 것」(*What the Thunder Said*)등과 연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상제단을 태움, 불과 촛불은 다름을 뚜렷이 명시하면서, 엘리엇은 조로아스터교로써 우상 숭배를 일삼는 영국인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산크리스토어를 등장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하는 영국이 모범적인 기독교를 인도를 선도하고 지배하고 선도해야하는데 오히려 인도의 우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런던의 현실감 없는 도시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교는 무너지고 만다.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결국 우상과 평화 협정을 맺는 장면이 산크리스토어로 연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와 허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장소,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대제자장마저 죄를 지어서 회막에도 못 들어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구원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전차와 먼지를 뒤집어쓴 나무들의 모습. 불이 탄다. 불의 존재는 익사 시체가 썩지 않는 것은 불행 미이라 등등이 사막에서나 볼 수 있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집트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는 시체를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체가 그대로 썩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광야에는 물이 없다. 「천둥이 한 말」(*What the Thunder said*)에 표현된 “여기는 물이 없고, 다만 바위 뿐(Here is no water but only rock) 바위 있고 물은 없고 모랫길 뿐(Rock and no water and the sandy road)” 싯구 속에서, 엘리엇이 쓴 『황무지』에서도 물이 없음을 얘기해주는데, 그것은 큰 재앙이고, 파멸을 의미한다. 인간의 불멸을 믿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온 그릇된 사상이기 때문이다.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썩지 않고 마른 뼈들의 등장은 물의 중요성, 세례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물이 없어서 침례조차 받을 수 없는 모습은 죄에서 인간들을 찢겨 내려갈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런던 교가 무너진다. 침례가 아닌 익사 행복한 왕자 오스카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공원의 동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제비를 통해 갖다주는 모습과 탑속에 갇춘 아키텐 왕자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언제 나는 제비처럼 될 것인가- 오 제비여 제비여(Quando fiam uti chelidon - O swallow swallo) / 황폐한 탑 속에 든 아키텐 왕자. (Le Prince d’Apquitaine à la tour abolie)’

결국 물이 없는 사막에서 불길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배화교를 숭상하는 등의 우상을 숭배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는 모습의 현장을 T.S. Eliot 의 『황무지』의 모습에서도 불을 숭상하는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황무지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른뻘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에스겔』서37:5~6)고 한다. 위에서 Rapa 가 언급한 것처럼, 절박한 상황이지만, 절대자는 이스라엘 예언자를 통해 구원과 갱생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주겠다는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호세아』와 『황무지』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

물의 부족과 신의 부재로 인해 인간들이 방황하고 어둠속에 헤메일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촛불이지만, 불을 관장하는 절대자를 무시한 황무지에서의 인간들의 삶이란 비참하고 타락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번개를 보이면서 빛의 이미지를 그려나간 「천둥이 한 말」(*What the Thunder Said*)은 곧 절대자가 인간에게 향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천둥이 한 말은 번개를 소리없이 비추면서 우상의 제단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촛불과 빛은 뚜렷하게 다름을 엿보이고 있다. 촛불을 살찌우게 한다면 (위로 올라가/ 길게 늘어선 촛부들을 살찌게 하고(. . . these ascended/ In flattening the prolonged candle-flames), 촛불 속에서 성적 타락으로 인해 촛농이 녹아 불길이 견잡을 수 없는 화재의 대재앙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불길인 것이다. 체스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하늘이 준 번개의 빛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천둥이 한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한다. 천둥이 오기전에 번개를 내리쳤을 법한데, 하늘이 경고를 내리는 빛은 보지 못한다. 이러한 빛의 이미지는 절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누가복음 2:31)

라일락 나무라도 존재할 광야에서 그러한 보기드문 나무조차 타버리는 모습은 십자가의 상징을 나타내는 나무의 모습이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나무 십자가가 타버리는 것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다. 라일락 나무는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나무이다. 가톨릭은 마무에 예수를 달아 놓은 채, 프로테스탄트는 예수가 없는 나무만을 상장을 삼는다. 세 개의 나무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 창조주 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밖에 없는 유혹의 열매가 달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태워버려 망가진 신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속죄와 화해의 나무이기도 하며, 숲과 나무가 있는 낙원을 연상하기도 하는 나무가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만다. 겨우 내 언 땅 밑에 보존하고 있던 풀들은 땅이 풀리고 햇살이 따뜻해지면부활을 알린다. 나무의 소생을 암시하면서, 주가 달려죽은 십자가라는 나무로 인해 악마를 퇴치하고 불치병을 낫게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나무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귀함이다.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생긴 유래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문형, p. 43)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나무의 소생을 암시하면서 주가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나무로 인해 악마를 퇴치하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나무가 불타오르는 모습은 신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다.

영국의 비현실적인 도시인 런던의 모습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런던의 거리는 항상 비가 내리고 있다. 겨울에도 비가내리는 우울한 도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4월은 한 여름 밤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사막에서의 한 여름 밤이 이교도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소나기와 함께 여름이 왔지요. 이 한 여름 밤이란 이교도의 축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탄생하는 12월 24일과는 가장 떨어진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이기 때문이다.

성서적인 차원에서, 한 여름 밤은 예수가 탄생하기 전 날 밤인 크리스마스 이브와 대립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 . .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과는 다르게 한 여름 밤은 개인의 자유의지도 제한되고 더욱이 고독적인 스산한 밤이 예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황인경, Pp., 33~34)

이와 같은 한 여름 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들의 달력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지에 결국 정했고, 요한이 세례를 받는 날(6월 24일)을 여름의 하지로 정해서 축제의 날로 기념했다. 가톨릭 사제회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복음주의에 관한 요한의 말을 상징화한 것을 정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야는 축복의 시간이며 악령이 어떠한 힘을 발휘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물론 성 요한의 이브는 보다 더 모호하지만, 공통된 것은 한 여름은 광기의 계절이라는 것이라고 『십이야』에 나오는 올리비아의 말이다. 결국, 한 여름은 한 해의 마지막 날과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황인경 번역)

The Christian calendar finally established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of Christ at the winter solstice, and made a summer solstice date (June 24) the feast day of John the Baptist. This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Fathers, symbolized John's remark in the Gospels on beholding Christ: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Christmans Eve was a beneficent time, when evil spirits had no power; St. John's Eve was perhaps more ambiguous, and there was a common phrase, "midsummer madness," used by Olivia in Twelfth Night, a play named after the opposite end of the year.(Frye, p.42)

광야는 식물도 자라나지도 않는 버려진 땅이다. 식물이 있어야 토양은 건강해진다. 썩을 틈을 때 유익한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박테리아가 식물이 죽고나면 질소를 남기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줘야 옥토가 되는데 황무지에서는 이러한 광야는 마른 땅이다.

토양의 비옥함이란 식물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물이 있어야 척박한 땅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시체조차 썩지 않는 척박한 땅의 모습이다. 황무지와 엘리엇트는 현대인의 실존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앤더슨(Anderson)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 "(출 13:18)

4) Bernard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P.1.

인도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광야에서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익게 해준 눈으로 대지를 덮고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T.S. Eliot, *The Waste Land*, 1st ~2nd Stanza)

『호세아』서 2장 15절의 메시지와 위의 시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한창 피어나던 시절 같이, 나를 대할 것이다.

There I will give her back her vineyards, and will make
the Valley of Achor a door of hope.

There she will respond as in the days of her youth,
as in the day she came up out of Egypt.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Lilacs out of the dead land에서 the dead land)는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 같이 아골골짜기에서도 회복 시켜줄 것이라는 말과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야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를 두 가지 측면으로 찾아보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광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했던 불평의 장소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이 결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을 지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호세아가 이같은 광야의 주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사막에 열린 포도송이 같더니, (『호세아』 9:11)

이와 같이 포도송이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쓰인 중의적인 의미로 알레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찢어 내어

빈 들에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래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치리라.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호세아』 2:14~15)

예언자들 중의 하나였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III. 결론: 심판과 구원의 약속

시를 읽어 내려가는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존재하지만, 『황무지』에서 드러난 공포적이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교도의 색채를 자아낸 것은 신의 부재 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T.S. Eliot의 황무지를 읽어 내려갈 때, 황무지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어로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불모지, 그리고 사막이란 단어가 광야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군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도 광야를 표현 할 때는 사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구약에서, Mosses의 40 일 동안의 사막 생활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막이란 단어는 바로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임을 연상케한다. 독자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모세의 사막 생활 이야기는 비기독교인 에게도 낯설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약』 성서에 나타난 광야의 이야기는 서구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 외에 다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소 선지자인 호세아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충실 함을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훼와 이스라엘과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아골 골짜기의 모습이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우상 숭배(A heap of broken image)로 이스라엘의 본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 골짜기는 일종의 공동묘지와 같은 곳으로 절망과 죽음의 땅, 황폐한 처소로 상징된다. (『에스겔』 37:1)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되리라고 말한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회복의 의미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진짜 독일인입니다“라는 복선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체결이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다.

라일락 나무는 타지 않고 잔인한 4월임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활과 소생의 힘을 발판으로 십자가를 언제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라일락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골 골짜기의 모습을 빌어서 T. S. Eliot는 『황무지』에서도 골짜기에 대해서도 아골 골짜기의 묘사를 하였다. 이 골짜기가 주는 상징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성서 이야기 속의 황무지와 특히 『호세아』서에 나타난 황무지에 나타난 광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나타난 광야의 모습을 병행해서 살펴본 결과 엘리엇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신념과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문제 역시 엘리엇에게 있어서 많은 관심을 제 첫 번째 장의 「죽은 자의 매장」에서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가 복선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인임을 강조하는 첫구가 시작된다. 이러한 T.S. Eliot의 심중은 영국의 비현실성은 종교개혁의 정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이라는 명분없는 종교개혁에 반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매장」에서부터 「천둥이 한 말」에서의 시어는 광야와 개혁의 의지를 담아내는

알레고리를 생성해내었는지도 모른다. 종교개혁을 통한 광야에서 벗어난 의지- 영국 런던의 비현실적인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 를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문법을 중요시 여기는 영국은 자연법에서 바라보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신의 섭리를 보여주고 싶은 엘리엇만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언제나 우상 숭배를 하고 방황을 하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기회를 준다는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가 T.S. Eliot의 『황무지』인 것이다. 구약에서 드러난 광야의 모습에서 보듯이, 계속적으로 방탕과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법으로 비유되고 있다. 우리는 『황무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구약』 성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광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약 성경의 광야에 대한 얘기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한 모습에 대한 얘기로 시작된 구원과 회복의 약속 장소로 불모지를 그려나갔다는 것에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광야에 대한 영국이라는 특수한 지역과 현실감 없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나감으로써 보편화 되어 있는 광야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시인의 상상력으로 그려나갔다. 성경 속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와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에 대해 서로 비교하고 반추하면서 하나의 성서적인 알레고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는 지속적인 사랑의 응시는 이 『호세아』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황무지에서도 일관성 있게 절대자의 구원의 손이 뻗어 있음을 암시하는 글들이 내포되어 있다.

참고문헌

Texts

- T. S. Eliot (2014), 황동규 역, 『황무지』 서울:민음사,
 T.S. Eliot (2016), *The Waste Land and Other Poems*, Ottawa: Disreads. com. Publishing,
 『개역개정 NIV English -Korean Study Bible』 (2013), 서울: 생명의 말씀사.
 『NIV 한영 해설 성경』 (2015). 서울: 성서원
 『쉬운 성경』 (2003), 서울:아가페, 2003.
 Good News Bible (2003), New York: American Bible Study.

References

- 김준형 (2020), 『T. S. 엘리엇의 황무지에 함의된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Journal of the T. S. Eliot Society of Korea* / T. S. 엘리엇 연구 Vol. 30.2 35-56
 배국순 (2017)『성경 대 탐험. 호세아편』 송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장일선 (1989), 『구약신학의 주제』, 「6. 광양의 기적」, 개정 증보판,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회사; 서울, 168-185.
 최문형 (2020), 『식물에서 길을 찾다』. 서울: 넥센미디어. 43.
 황인경 (2016), 『셰익스피어 희극 속에 나타난 문화 변이 현상과 영국 르네상스와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3-34

Anderson (1970). W. Bernard,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 Minster Press, 1

Frye, Northrope (1986), *Northrope Frye on Shakespeare*, ed. Robert Sandler, New Haven: Yale Univ. Press, 42.

Rapa J. Luke (2010), *Out of This Stony Rubbish: Echoes of Ezekiel in T. S. Eliot's The Waste Land*, Allendale: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9.

NIV. Application Study Bible (1997), Tyndal Publishers: Carol Stream: Tyndal Publishers & Grand Rapids: Zondervan.

논문 초록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하더라고 지속적인 사랑의 손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약에서는 설명 되었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영국의 모습을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그려나갔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 “내가 말할 때 광야가 너를 마음으로 인도 할 것이다.” (「5. 천둥이 한 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 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간청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합시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쳤지만, 결코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를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듯이 T.S. 엘리엇 역시 영국의 광야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의 『황무지』의 시 속에서 노래를 하였다. 독일과 같은 개혁을 통해 비현실적인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바꾸고 싶었다.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 가장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의 천막이 찢어진 것이 『황무지』에서 강의 천막이 찢어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는 소련과 같은 혁명가들에게 냉소적 일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적이 된 이스라엘의 개별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가 쓴 『황무지』의 배경은 구원과 심판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검색어: T.S. 엘리엇의 황무지, 종교개혁, 개인적인 구원, 종교개혁, 대제사장, 지성소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T.S. Eliot의 『황무지』에 대한 성경적 배경에 관한 이미지	발표자	황인경
		논찬자 (소속)	김경철 (유대사상연구소)

발표자는 엘리엇의 황무지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 이미지를 동일시하면서 ‘시적 상상력’(Poetic Imagination)이라는 장치를 동원하여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장소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락원』의 저자 밀턴(Milton)에게도 동일한 배경을 제공하는 데 곧, 에덴과 광야 또는 세상이고, 마지막은 낙원 또는 성경이 피날레로 마감하는 천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야는 발표자가 말한 대로 징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위한 전 단계가 되는 것이다. 발표자가 광야를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종교개혁을 언급한 것은 매우 특이하고 참신한 발상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시 『황무지』에 쓰여진 독일어 싯귀를 언급한 것은 매우 독창적이고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구조가 크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락이 광야에 해당한다면 광야에서의 탈피를 위해서는 구속이 필연적이다. 달라 말하면, 구속이란 광야에서의 탈피를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구속(redemption)이 ‘포로 또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속박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명징하게 드러난다. 구속이 수단이자 목적이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1:21)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찰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도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기’(Ad Fontes) 곧 초대교회, 그들의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황폐한 땅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계약”의 필연성을 개진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이란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은혜의 새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볼 때, 발표자가 라일락 나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적한 것은 성경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서 시인 엘리엇이 말한바 ‘불가능의 결합’(the union of the impossible)이 이루어진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이른다.

엘리엇은 자신의 시, 특히 『황무지』에서 황무한 땅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서 제 3의 인물(the third), 곧 ‘후드를 쓴 채 그대와 나란히 걷는 또 한 사람’(another one walking beside you, hooded)을 언급하고 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암시하는 장면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보일 듯 말 듯 등장한다. 부활사건은 역사적이면서(historical) 동시에 획기적(historic) 사건이며 이는 chronos(χρόνος)이자 동시에 kairos(καιρός)적 사건이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 옆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육안(肉眼)이 아닌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제자들이 만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자신의 부활 사건으로서 자신이 역사의 중심(gist)이며 동시에 광야 역사를 구속할 유일한 분임을 제시한다.

인간이란 이야기하는 동물(homo narrans)이며 그들은 대체적으로 스토리 안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기다리는 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만난 그리스도는 거대담론의 주인공(the

Person)이다. 그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부활(復活)하신 분으로서 이를 통해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the invisible God(골1:15) 자신임을 증명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救援)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이라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 יָדָע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서 부부 관계와 같이, 남과 공유할 수 없는 진정하고도 친밀한 앎을 가리킨다. 이는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시대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의 레종 데트르(Raison d'être)이다.

『황무지』에 나타난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이미지는 먹을 것이 풍부했던 최초의 낙원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동시에 광야에서 40년간 시험받았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한다. 인류 최초의 타락 현장인 에덴과는 정반대로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주야(晝夜)로 금식하신 후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여 에덴에서의 범죄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를 되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in Christ)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상처난 외과의”(the wounded surgeon)로서 “그 피 흐르는 두 손 밑에서”(beneath the bleeding hands)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치료자의 날카로운 연민”(the sharp compassion of the healer's art)을 느낀다. 이제 광야 또는 황무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는 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삼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갈2:20)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이다.(엡2:6)